

음정의 형상화를 이용한 재즈 코드 시창·청음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김 예 슬* · 전 윤 한**

본 연구는 실용음악 관련 학습자들의 시창·청음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음정의 형상화를 이용한 시창·청음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감정이론과 색채와 감정효과를 활용하여 재즈 코드 시창·청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약 16시간의 수업 과정을 거쳐 학습자의 변화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시창·청음 능력의 향상과 학습자들의 수업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시창 청음 능력의 향상을 위해 재즈 음계에도 적용 및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창·청음 교수방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제어: 음정, 형상화, 시창·청음, 재즈코드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기존 시창·청음 교재 및 수업 분석
 - 2. 형상화에 대한 선행연구
 - 3. 감정이론과 음정의 형상화
 - 4. 색채와 감정효과에 따른 음정의 시각적 형상화
 - 5. 상징개념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현장 및 연구 참여자
 - 2. 연구 절차
 - 3. 자료수집 및 분석
- IV. 음정의 형상화를 통한 재즈 코드 시창청음 프로그램 개발
 - 1. 프로그램 개관
 - 2. 차시별 지도 계획
- V. 연구 결과
 - 1. 수업 태도의 변화
 - 2. 재즈 코드의 시창·청음 능력 향상
- VI. 결 론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석사과정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I. 서론

코다이(Zoltán Kodály)는 독보와 기보의 능력은 음악 학습과 활동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습득되어야 한다고 믿고 글을 아는 사람만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듯이 음악적으로 읽고 쓰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을 때에야 비로소 풍요로운 음악생활이 가능한 음악인이 된다고 말했다(이흥수, 1990).

국내에 약 80개가 넘는 실용음악 학과가 개설됨에 따라(한승희, 2013), 재즈 시창·청음 수업과 그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내은(2001)은 시창·청음 수업의 목표에 대하여 음악적인 귀를 발달시키고 소리에 대한 식별력을 갖추어 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귀의 감수성을 교육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악보만 보고도 음을 그려 내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청각적으로 이해하려는 능력은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신혜승, p. 3673). 재즈에서의 시창·청음은 대부분이 즉흥연주(improvisation)로 되어있는 재즈곡을 채보(採譜)할 때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재즈 코드(chord) 구성 음들의 특성을 알고 그 음들을 시창·청음할 수 있는 것은 재즈 화성학의 이론적 요소를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즉흥연주의 기량에 직결된다 할 수 있다. 재즈 음악인들은 종종 재즈와 즉흥연주를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일 어처럼 사용하기도 한다(MARK C. Gridley, 1988).

재즈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코드는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을 동시에 울리게 하여 합성되는 화음을 말하며, 코드를 이루는 각각의 음들을 코드 톤(chord-tone)이라 한다(삼호뮤직, 2002). 선행 연구 중 강은미, 조태선(2017)의 ‘재즈 보컬 입문자를 위한 즉흥연주에 관한 연구 - 코드의 근음과 코드 톤을 이용한 연습방법 및 연출 분석’ 논문에 따르면 즉흥연주를 연습할 때에는 코드 톤을 응용한 연습을 선행 후 다양한 음들을 조합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며, 코드 톤은 즉흥연주의 필수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즈 코드를 이론적으로는 명확히 알고 있으나 시창·청음 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시창·청음 수업에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확실한 동기가 없이 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 대부분이 이론 중심의 교수 방법에 의하여 학습자에게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방법 안에서 음정이나 멜로디를 받아 적거나 노래하는 훈련 중심의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하는 데에 한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신은희,

2010, p.114). 신은희는 ‘피아노 즉흥연주를 활용한 음정 청음의 학습 방안 연구’에서 음정이 가지는 소리를 인지하고 자신의 음악적 잠재력을 표현 할 도구로 삼아 실제로 적용 할 때에야 궁극적인 음정 학습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언급하여 음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창의적이고 보다 실제적인 교육 방법이 연구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즈 화성학의 이해를 위하여 기초 화성학의 이해를 필요로 했듯, 재즈 시창·청음 또한 선율이나 박자 등의 학습 이전에 재즈의 주요소인 코드에 관한 시창·청음 수업은 필수적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 프로그램 개발 또한 시급해 보인다.

본 논문은 재즈의 코드 톤이 같은 음정 관계로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감정이론의 음정에 따른 정서적 성격과 색채와 감정효과를 통한 시각적 형상화를 이용하여 재즈 코드 시창·청음 수업의 효과를 찾고자 한다. 나아가 이론 수업으로 통용되었던 시창·청음 교육이 앞서 언급한 즉흥연주, 즉, 실기로 연결 되는 하나의 교육 방법을 모색함으로 본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키른베르거(J. Ph. Kirnberger)는 음정에 따라 감정을 분류하여, 단 3도는 슬픈, 장 3도는 만족한 등으로 음정과 감정의 관계를 정의하였고, 하현승(2012)은 이론을 바탕으로 노란색은 기쁨, 회색은 슬픔 등으로 색채에 따른 감정효과를 정의하였다. 이에 관하여 김성수(2013)는 음악의 시각화는 공감각 현상 중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감각 현상에 속하는 청각과 시각의 상호작용 현상으로 음악적 체험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색채와 형태로써의 시각적 표현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색채와 감정 효과는 음정에 따른 감정을 보다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이미지 형상화 하는 것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음정에 따른 감정과 그에 파생된 색채들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관련하여 이성현(2016)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은 똑같은 빨간색을 보고도 서로 다른 느낌을 이야기하며, 이처럼 감각에는 정답이란 것이 없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음악가들은 많이 사용되는 코드들의 느낌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Major 7 chord - 밝고 상큼하며 몽롱하다. minor 7 chord - 어둡고 차분하다 등, 나만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 보고 그 느낌을 외우려고 노력해 보자(이성현, 2016, p.22).

이러한 이론들을 상징개념을 바탕으로 하나의 예시로 학습자에게 인지시키고 학습자의 감정 및 색채 선택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재즈 코드의 시창·청음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습자 주체의 활동 중심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감정이론과 색채와 감정효과를 바탕으로 음정의 형상화를 이용한 재즈 코드 시창·청음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재즈 시창·청음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수업의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이론에 기인한 음정에 따른 정서적 성격과, 시각적 형상화를 위한 색채와 감정 효과를 이용한 재즈 코드 시창·청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감정이론과 색채 감정 효과를 고려한 시창·청음 프로그램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재즈 코드 시창·청음 평가를 진행하여 결과를 알아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존 시창·청음 교재 및 수업 분석

본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내 실용음악학과가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시창·청음 교재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1>.

<표 1> 국내 실용음악학과 of 시창·청음 교재 및 내용

교재명	저자명	주요내용	출판사명
시창과 청음 1, 2	이성천	선율, 조성, 변박자	음악예술사 (1978)
코다이 슬폐지	조흥기 (편저)	33개의 2성부 선율	다라(1996)
단계적 시창	장귀오	음정, 음계, 조성, 선율	다라(1996)
시창	오트만	음정, 음계, 리듬, 화음, 2성부, 보표	삼호출판사 (1989)
재즈 시창청음	이우창	음계, 화성, 리듬	경희대 출판국 (2003)
청음 1,2	김일권, 윤경미	리듬, 선율	현대음악 출판사 (2002)
Training the Ear	A. Donelian	음정, 음계, 화음, 선율	Advanced Music(1992)
Ear Training	Bruce Benward	음정, 리듬, 선율, 화음, Cadence	Wm.C.Brown.Co (1983)

출처 : 신혜승(2010, p.3675) 재구성.

앞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시창·청음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음정과 리듬, 선율이며 실제 수업에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결합되어 선율을 노래하고 받아 적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대적으로 보표 읽기 훈련이나 화음 학습, 즉흥성 훈련 등은 비중이 약하거나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신혜승, 2010, p.3675).

신혜승의 ‘실용음악 전공자를 위한 시창청음 교육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실용음악 전공자를 대상으로 시창·청음 학습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표 2>.

<표 2> 시창청음 학습 현황에 대한 설문지 분석표

질문 내용	답변 내용	
학습 능력 수준	만족 (28%)	보통 이하 (63%)
시창 및 청음 난이도 인식	청음(43%) 시창(20%) 시창 및 청음(37%)	
보완할 음악 요소 (난이도 인식)	화성(35%) 선율(34%) 리듬(30%) 기보속도(3%)	
즉흥연주 학습 여부	예 (8%)	아니오(82%)

출처 : 신혜승(2010, p.3674) 재구성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능력 수준에 대하여 보통 이하, 63%로 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청음을 어렵게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신혜승은 이를 중등 교육에서의 가장 중심 교육의 이유로 지적하였고,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화음 인지 능력과 표현 능력은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화음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즉흥연주 학습 여부에 아니오 응답의 82%의 높은 비율은 시창·청음 수업이 재즈의 코드에도 적용되어 즉흥연주 실기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학습자들은 시창 및 청음 난이도 인식조사에서 청음, 43%, 시창과 청음, 37%, 시창, 20% 순으로 청음의 난이도를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완할 음악 요소에 대하여 화성, 선율, 리듬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찰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존 시창·청음의 수업 및 교재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찾고자 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범위

인 음정에 관하여 각 교재의 세부적인 목차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3>.

<표 3> 음정을 다룬 교재들의 목차 및 음정 시창·청음 부분의 주 내용

교재/저자명/출판사	전체적 목차 요약	주 내용 요약
단계적 연습을 위한 시창/ 장귀오/ 현대음악출판사	단계적 음정 연습 (2도~8도), 명곡, 리듬, 음계, 음정 시창연습.	·완전 협화, 불완전 협화음정 ·기준 음을 중심으로 음정 시창.
눈과 귀를 열어주는 새로운 스타일의 시창과 청음/ 신혜승/예술	리듬, 보표읽기, 음정 연습(2도~8도), 음계, 화음. 선율.	·기준 음을 중심으로 음정 시창. ·코드의 구성 음을 악기를 연주하며 연습.

이처럼 여러 가지 스케일과 명곡 연습, 기초적인 화성학을 토대로 2도 음정부 터 8도 음정까지 차례로 시창·청음 하는 반복적인 학습을 요구하고 있었고, 기준 음을 중심으로 위, 아래 음정으로 시창하기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재즈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재즈 코드가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즈 코드 시창·청음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율과 박자 등의 시창·청음 수업을 직면해야하는 실정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들에서 잘 나타난다.

“코드는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구성 음들을 적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걸 부르는 건 못할 것 같아요.”(조**, 보컬, 18세)

“저는 스캇을 해야 해서 코드 톤을 정확히 부르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이**, 보컬, 19세)

“재즈피아노로 즉흥연주를 할 때, 스캇을 하며 해보고 싶은데 코드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유**, 피아노, 19세)

따라서 기존의 시창·청음 교재 분석과 학습자들의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학습자들은 재즈 코드 시창·청음에 체계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형상화에 대한 선행 연구

형상화(形象化)란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

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표준국어대사전). 음악, 문학 분야에서 형상화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도 방법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정순(2007)은 교육적 국면에서 이미지의 형상화라는 학습자의 역동적 행위를 살피면서 그것이 상당부분 상상력의 영역에 걸쳐 있고, 이는 창조의 기쁨을 맛보게 하며 이성과 정서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언어적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형상화를 통한 지도 방법은 진정한 언어화만을 고집하던 권위적이고 까다로운 의미 구성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 방법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방법이 아닌, 학습자 고유의 감정을 음정에 대입함으로 형상화를 이용하여 흥미를 느끼게 하고,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본 프로그램 교육 목표에 이러한 형상화 지도 방법은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양서영(2010)은 ‘비유적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지도 방법 연구’에서 비유적 이미지 생성을 통해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적 표현력이 높아졌음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형상화를 이용한 지도 방법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즈 코드 시창·청음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감정이론과 음정의 형상화

감정(Affekt(독일))이란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Afficere에서 유래한다. Pathos(그리스), Passion(프랑스), Affectus(라틴어)와 동의어이며, 정열(Leidenschaft) 또는 정서유발(Gemutserregung)로 이해된다(W. Serauky, 1991, p.113). 17세기 중반 메르센느(M. Mersenne, 1588 - 1648), 키르셔(A. Kircher, 1602 - 1680)를 선두로 하여 마테존(Johann Mattheson, 1681 - 1764), 마르푸르크(F. W. Marburg, 1718 - 1795) 등의 이론가들은 감정의 유형과 음악적 표현방법의 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데(김미애, 1999, p.7에서 재인용), 음형 뿐 아니라 음계, 리듬, 조성, 악기, 형식 등과 감정의 유발 관계에 관하여 저술하였다. 또한, 데카르트(Decartes)는 원초적 정념을 여섯 가지 정념, 경이, 사랑, 미움, 욕망, 환희, 슬픔으로 분류 분석하여 정의를 내렸으며 그의 이론은 바로크의 감정이론을 육성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R. Decartes(1995), 김영효(역), 서울 : 삼성세계사상). 즉, 바로크시대는 음악의 모든 요소(음계, 리듬, 멜로디, 화음 구조, 조성, 악기음색 등)가 특정한 감정의 유형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크반츠(Joh. Joach.

Quantz 1697 - 1773)는 조성은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있으며, 강한 성격의 조성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쾌함, 대담함, 진지함, 장엄함이 표현되고, 부드러운 성격의 조성에서는 아침, 슬픔, 상냥함 등이 표현된다고 하였다(김미애, 1999, p.35). 그는 조성과 정서적 성격을 정의하였고, 키르베르거는 음정과 감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표 4>. 그러나 크반츠는 조성과 감정의 관계를 언급하며 예외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표 4> 음정과 정서적 성격

음정	상행 진행	하행 진행
증 1도	소심한	매우 슬픈
단 2도	슬픈, 애수	쾌적한
장 2도	만족스러운, 유쾌한	진지한
증 2도	애타게 그리운	상냥하게, 아침의
단 3도	슬픈, 애수에 찬	의젓한
장 3도	만족한	열정적인
감 4도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증 4도	거친	가라앉듯이 슬픈
완전 5도	즐거운	안심되는
증 5도	소심한	경악(베이스에만 나타남)
단 6도	고통스런, 애원하는 듯	진정적인
장 6도	즐거운, 성급한, 거친	놀라운
감 7도	고통스런	고통에 호소하듯이
단 7도	슬픈, 망설이는	약간 겁먹은
장 7도	거친, 성난	경악스런, 겁먹은
완전 8도	즐거운, 명량한	매우 안심되는

출처 : 김미애(1999, p.36-37) 재구성

바로크 시대의 음정에 관한 정서적 성격의 정의는 재즈 코드가 일정한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의거하여, 음정을 감정으로 형상화하는 활동에 유용하다. 이러한 음정에 따른 정서적 성격의 제시는 학습자가 음정을 청음 후,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에 하나의 예시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활

동은 학습자에게 주체성을 부여하여 하나의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인지될 수 있다. 데릭 쿡(Deryck Cooke)은 음악은 정확히 말해서 감정의 언어이며, 발화(speech)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김혜숙, 김혜련, 1997, p.51). 데릭 쿡 또한, 음표와 음정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파생하는 어떤 악구(phrase)들은 내재적으로 정서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결국 음계들의 음표들이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의미들은 정서적 의미 작용의 상항(constant)으로 생각될 수 있음을 뜻한다(김혜숙, 김혜련, 1997, pp.51-52). 음정 학습에서 이론적인 요소로 접해왔던 학습자들은 이를 감정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생소하게 느낄 수 있으나, 이러한 데릭 쿡의 주장은 음정에 관한 정서적인 의미를 찾는 활동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잔 랭거(Susanne Langer) 또한 음악은 감정의 논리적 표현이며, 이는 우리가 감정들의 삶을 식별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적 상징이라고 주장한다(김혜숙, 김혜련, 1997, pp.56-60). 즉, 바로크 시대의 학자들과 데릭 쿡, 수잔 랭거의 이론들은 모두 음악의 가치가 음악 외적인 어떤 것, 감정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음정을 청음 후 감정으로 형상화 하는 학습에 하나의 예시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학습과 화성학에 편향된 시창·청음 교육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색채와 감정 효과에 따른 음정의 시각적 형상화

음악과 같은 청각적 자극으로부터 시각적 구성을 행하는 경우는 음악으로부터 받는 개인적 의미를 상상력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문선옥, 이정섭, 유택상, 2016, p.211에서 재인용). 누구나 색채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바 있으며 색은 시각을 통하여 지각되고 감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감각현상들을 루이스 체스킨(Louis Cheskin)은 감각전이라고 하였다(하현승, 2012, p.9). 이러한 색채와 감정 효과는 앞서 형상화 한 감정을 색채에 연관시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보다 분명하게 음정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색채의 감정효과와 연상에 대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분류한 것이다<표 5>.

<표 5> 색채와 감정효과

감정의 유형		색채
기쁨	감동	따뜻함(빨강, 주황, 노랑)
	만족감	만족(파랑)
	즐거움	환희(고채도 노랑), 쾌락(노랑)
	신명남	축제, 웃음(빨강, 주황, 노랑)
슬픔	고통	억경(회색), 병(보라)
	절망	낙담(회색), 실망(보라)
	외로움	쓸쓸함, 고독(저명도 파랑)
분노	화 / 격분	반항(빨강, 주황)
두려움	공포	공포(남색, 저명도 보라, 검정)
사랑	애정	애정(고명도, 고채도 빨강)
	그리움	쓸쓸함(저명도 파랑, 회색)
미움	증오	증오(검정, 보라)

출처 : 하현승, (2012 ,pp.21-40) 재구성

하마모토 다카시는 기쁨이라는 단어의 연상 색으로 노랑·빨강·분홍·주황·흰색·파랑·청록 등 12가지 색이 눈에 띄며 주요한 색채는 노랑·빨강·분홍이라고 정의하였고, 이 감정에서 노랑·빨강·분홍 가운데 하나를 떠올린 사람의 수를 합하면 전체의 70퍼센트를 웃돈다고 하였다(최영주, 2008, p.229). 또한 피테는 경험상 황색은 전적으로 따뜻하고 안락한 인상을 주며 황색은 회화에서 밝고 활동적인 부분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피카소는 가장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의 그림을 청색시대라 불렀다(하현승, 2012, p.25).

색채에 따라 감정이 유발 될 수 있으며 감정에 따라 색채가 연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색채와 감정효과는 음정에 따른 형상화에 또 하나의 시각적인 수단으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윤영(2008)에 따르면, 이러한 색채와 감정효과는 지식, 경험, 성격, 환경, 직업 등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들을 학습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색채와 감정 효과 표를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주관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학습자 고유의 음정 형상화 도구를 갖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 상징개념

상징 개념이란 수잔 랭거의 철학의 중심 개념이며, 이는 경험의 자료에 형식을 부여하는 수단을 말한다. 즉, 모든 상징의 일차적인 기능은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다(김혜숙, 김혜련, 1997, p.56). 상징개념은 음정을 듣고 선택한 학습자 고유의 감정과 색채 수단으로 이를 형상화하는 바탕으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음정 청음에서 이를 이론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감정 및 시각적 형상화의 경험에 따라 이를 청음 시에 상징적으로 기억 하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감정과 색채 선택에 있어서 개인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색채 및 감정을 각자의 형식으로 부여하여 음정 청음에 적용하는 활동에 이러한 상징개념은 학습자 개개인의 형상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이론, 색채와 감정 효과에 기초한 음정의 형상화를 통한 시창청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재즈 코드의 시창·청음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수업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정이론, 색채와 감정 효과를 기반으로 개발한 음정의 형상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개선 및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목표에 접근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현장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청주 소재 실용음악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다. 음정의 형상화를 이용한 재즈 코드 시창·청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참여자와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경험이 수반되는 해석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Creswell, 2009), 연구자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연구 장소와 연구 대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확한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기존의 시창·청음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 유의적 표집을 통하여 30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전공 희망 약기는 보컬 21명, 기악 6명, 작곡 3명 순으로 보컬 전공을 희망하는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존의 시창·청음 수업 경험이

있었으며, 수업을 들은 지 3년 이상 된 학생은 3명, 10%, 2년 이상 된 학생은 6명, 20%, 1년 이하인 학생은 21명, 70% 이었다. 교실수업 환경은 피아노와 책상, 칠판, 오디오, 컴퓨터 등이 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자 개인의 음악적 지식 및 경험, 사전 학습의 정도 등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관찰을 하였다. 연구자는 실제로 수업을 지도하며 참여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8년 1학기, 매주 2시간의 8주차 수업으로 약 16시간의 수업을 실행한 연구이며, 연구 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표 6>. 연구 절차는 문제점 발견, 해결 방안 모색, 실행, 평가 순서로 진행하였다. 수업계획안, 개인 평가지, 시험지, 면담 및 관찰 일지, 활동사진, 인터뷰 등을 작성 및 분석하였다.

<표 6> 연구 일정 및 절차

단계	방안	기간	절차
1단계	문제 인식	2017. 8. 31- 2017. 11. 24	학습자들이 재즈 코드 시창·청음에 어려움을 느낌 - 기존의 시창·청음 수업 점검
2단계	해결방안 모색	2017. 12. 1- 2018. 5. 9	문제인식 후 방향모색을 위한 문헌조사 및 연구 - 감정이론, 색채 감정효과에 기초한 음정의 형상화 프로그램 연구
3단계	실행	2018. 6. 14 - 8. 2	개발된 프로그램 실행 1. 계획안 2.진행 3.완성
4단계	분석 및 평가	2018. 8. 3- 2018. 8. 10	시험지, 인터뷰 작성 및 분석
5단계	실행 평가	2018.8. 10- 2018. 8. 25	실행 방안 평가 - 프로그램 실행 후 학습자들의 변화·수업 개선효과 분석

연구자는 연구기간을 2017년 12월부터 준비하여 2018년 6월 중순에 투입하여 2018년 8월 말까지로 제한했다. 연구자는 5년간의 시창·청음 및 이론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관찰하였다. 연구 절차 3-1단계에서 사전 문헌조사

를 바탕으로 개발한 시창·청음 프로그램 실행을 안내하였다. 3-2단계는 실행을 진행하는 단계로 학습자의 음정에 따른 감정 선택 및 이와 연관된 색채 도구를 개발하여, 감정이론에 대한 이해와 음정의 형상화에 필요한 수업 요소를 탐색 및 적용하도록 하였다. 3-3은 완성단계로 감정이론, 색채와 감정 효과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즈 코드 시창·청음 수업 목표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4, 5단계는 분석 및 평가를 하는 단계로 시험지와 인터뷰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학습자들의 시험지를 프로그램 실행 전후로 비교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현장의 이해를 위해 경험중심자료인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하였으며(김영천, 2013), 자료수집 방법은 밀스(Mills, 2011)의 자료수집 기법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수집 하였다<표 7>. 또한 김혜실(2014)이 사용한 자료 수집 형태를 부분적으로 차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즈 코드 시창·청음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추가적으로 찾고자 하였다.

<표 7> 자료수집 형태

경험/관찰과 현장노트	질문·면담이나 설문	문서기록
능동적 참여 관찰자 수동적 참여 관찰자	사전, 사후 조사 면담, 인터뷰	평가지, 학습일지 현장노트, 컴퓨터

첫째, 연구자는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현장을 관찰하고 정리하였다. 참여관찰은 내부로부터 문제를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이므로, 연구자는 학습자의 감정과 색채를 통한 음정의 형상화 활동을 위해 프로그램에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자는 대상을 깊이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면담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의견 및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시창·청음 수업과는 다른 프로그램이므로, 매주 학습활동을 마칠 때마다 학습자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는 현재 학습 상황 및 학습자의 이해 정도 등을 파악하기에 유익했다.

셋째, 수업일정 일지, 교사 일지, 학습자 수업 일지, 시험지, 인터뷰를 중심으로

문서를 기록하고 수집했다. 특히,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견해와 다양한 의견, 개선 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시험지를 통하여 수업의 효과 및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넷째, 가장 큰 흥미와 관심을 보였던 색채 도구는 다음 수업을 위한 학습 도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음정의 형상화를 시행한 결과 수업 학습 태도 및 시청·청음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IV. 음정의 형상화를 통한 재즈 코드 시청·청음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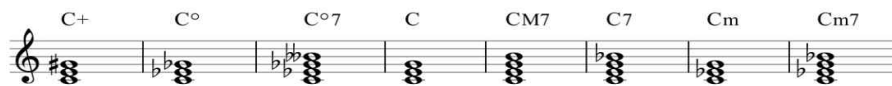
본 연구는 감정이론, 색채와 감정효과를 적용하여 재즈 코드 시청·청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Mills(2011)의 교육현장에서의 실행연구를 참조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재즈 코드의 시청·청음 및 나아가 재즈 코드의 식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단순히 귀를 이용해 소리 자체를 듣는 것(sound events)이 아닌, 귀와 마음을 이용해 음악적인 소리(musical events)를 듣는 것(Sisley, 2008, p.1)을 위한 교수방법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 하였다. 이는 『음악 이론 교수의 접근 방법(Teaching Approaches in Music Theory)』 책의 저자 마이클 로저스(Michael R. Rogers)의 주장으로 많은 음악 이론가들의 실기 중심 교육의 중요성 강조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바로크 시대의 감정이론을 통한 형상화와 다섯 가지 감각 중 시각을 고려한 시각적 형상화를 적용하여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개발하였으며,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표 8>.

<표 8> 음정의 형상화를 통한 재즈 코드 시창·청음 프로그램 계획안

단계	목표	내용
1단계	재즈 코드의 음정	재즈 코드 시창·청음 이전에 코드의 각 구성 음과 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피 하므로 이론적인 설명을 한다.
2단계	감정을 통한 형상화	음정의 감정적 형상화에 대하여 바로크시대의 감정이론을 설명하고, 음정과 감정의 정의 표를 예시로 제시하고 음정을 감정으로 형상화 할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학습자의 주관적인 감정 및 정서적 성격을 서술하여 음정에 관한 개인의 감정을 연결하여 형상화 한다.
3단계	색채를 통한 형상화	색채와 감정 효과에 따른 각각의 색상 학습도구를 개발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학습자의 감정과 연관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한다.
4단계	상징개념	형상화 된 감정과 색채를 가지고 각각의 재즈 코드 음정에 대입시켜 이를 시창·청음 하고, 나아가 코드를 식별하여 본다.
5단계	결과 분석	본 프로그램 실행 전 후의 시험지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통해 결과를 알아본다.

1) 음정의 형상화를 위한 프로그램

재즈 코드는 3화음과 7화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ajor triad, minor triad, 7 chord(Major, minor, Diminished) 등이 있다. 키른 베르거의 1~8도의 음정관계와 정서적 성격의 이론을 각 코드 톤의 1-3음, 3-5음 또는 1-3음, 5-7음 등이 3도 간격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3도로 축약하였으며, 1-3, 3-5, 5-7음의 간격으로 분류하여 진행 하였다. 음정은 장 3도와 단 3도를 각각 선행학습 후, 키른 베르거의 음정과 감정에 관한 표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진행 할 코드와 이에 따른 음정 분류는 다음과 같다<그림 1>, <표 9>.



<그림 1> 프로그램 코드 및 순서

<표 9> 각 코드 톤의 음정

	1-3	3-5	5-7
aug	장3도	장3도	없음
dim	단3도	단3도	없음
dim 7	단3도	단3도	단3도
Major	장3도	단3도	없음
Major 7	장3도	단3도	장3도
7	장3도	단3도	단3도
minor	단3도	장3도	없음
minor 7	단3도	장3도	단3도

2) 색채와 감정효과에 따른 음정의 시각적 형상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음정 패턴을 기억하는 활동은 음정 지도에 효과적이다 (고선미 2012). 색채와 감정 효과에 따른 음정의 형상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음정을 듣고 그에 따른 감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감정의 유형과 색채의 분류표를 예시로 제시하고, 개발한 색상도구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음정관계를 분명하게 형상화 하고, 음정과 색채의 관련을 통한 상징개념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3) 음정과 감정, 색채와 감정효과와의 통합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음정과 감정에 따른 형상화, 색채와 감정 효과에 따른 시각적 형상화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활동을 실행하였으며<표 10>, 학습 활동 단계는 듣기, 서술하기, 다시 듣기, 형상화하기, 기보하기, 노래하기의 단계로 하였다. 고선미(2012)는 초등학생을 위한 전략적 음정지도방안에서 1~6단계로 음정 학습 과정을 분류하였는데, 이 중 3단계: 기억 속에 저장된 음정을 정신적으로 들으며 학습자의 목소리로 소리내기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머릿속에 저장된 음정을 정신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프로그램 <활동1>의 다시듣기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앞서 선행한 동일한 음정을 재 청음 하여 음정의 형상화를 분명하게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표 10> 감정이론, 색채와 감정효과를 활용한 프로그램 내용

학습활동	학습요소	감정이론 활용내용	색채·감정효과 활용내용
<활동1> 듣기 ↓ 서술하기 ↓ 다시듣기 ↓ 형상화하기 ↓ 기보하기 ↓ 노래하기	·음정 청음: 장3도와 단3도의 음정 5도권(어떤 음에서 완전 5도의 상하 진행을 연속하여 만들어지는 순환도 (삼호뮤직, 2002)) 진행으로 듣기.	·키르베르거의 음정에 따른 감정의 정의 :재즈 코드의 음정들은 감정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인지.	·색채와 감정 효과 :색채에 따라 감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
	·감정 서술 및 표현: 제시된 감정의 표를 예시로 제시, 학습자의 감정을 자유롭게 서술하고 색상도구 선택하기.	·학습자의 감정을 자유롭게 서술 및 표현.	·학습자의 감정에 따른 색채를 자유롭게 선택.
	·음정 재 청음 및 형상화: 음정에 따라 서술한 학습자의 감정을 음정 재 청음을 통한 형상화를 통하여 기보하기.	·학습자가 서술한 고유의 감정으로 동일 음정 재 청음, 음정을 학습자의 감정으로 형상화하여 기보.	·학습자가 선택한 색상도구를 가지고 동일 음정 재 청음, 음정·색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기보.
	·시창 : 학습자의 감정이론/색채를 통한 형상화를 기억하여 시창하기(LA소리창법 :모 든 음을 LA로 통일함으 로 게이름을 읽거나 음이 름을 읽는다. 이는 이름 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정 확한 음정을 낼 수 있다).	·형상화 된 음정을 학습자가 선택한 감정의 형상화와 함께 시창과 연결.	·형상화 된 음정을 색채 도구를 사용한 시각적 형상화와 함께 시창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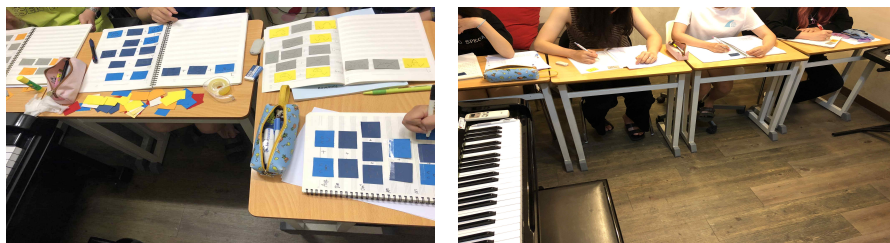
2. 차시별 지도계획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시창·청음 수업을 위해 음정의 형상화를 통한 재즈 코드 시창·청음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표 11>. 또한 음정에 기초한 재즈 코드 시창·청음 교육의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구성하기 위해 음정지도 및 시창·청음 교육관련 연구와 문헌, 이론 등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추출하였다. 약 16시간의 수업은 청음에서 시창이 연결되는 통합적인 방법 안에 본 프로그램이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음정은 장3도, 단3도 음정

을 각각 선행 학습 후, 음정과 정서적인 성격 표를 예시로 제시하여 음정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가능함을 인지시켰으며, 학습자가 서술한 감정과 색채를 조합하여 코드에 적용하였다<그림 2>.

<표 11> 시청청음 차시별 지도 계획과 학습활동

차시	학습목표	활동
1주	·감정이론 및 색채와 감정 효과 안내	·감정이론 이해 및 색채와 감정 효과 학습
2주	·장 3도 음정과 Aug chord ·조성 5도권 진행 ·박자 4분의 3박자, 8분음표, 4분음표	·활동 1 (청음-시창) ·개인 일지
3주	·단 3도 음정과 Dim, Dim 7 chord ·조성 5도권 진행 ·박자 4분의 3박자, 8분음표, 4분음표	·활동 1 (청음-시창) ·개인 일지
4주	·장 3도 음정과 단 3도 음정의 조합 Major, Major 7 chord ·조성 5도권 진행 ·박자 4분의 4박자, 4분음표, 2분음표	·활동 1 (청음-시창) ·개인 일지
5주	·장 3도 음정과 단 3도 음정의 조합 7 chord ·조성 5도권 진행 ·박자 4분의 4박자, 4분음표, 2분음표	·활동 1 (청음-시창) ·개인 일지
6주	·장 3도, 단 3도 음정의 형상화 복습 ·조성 5도권 진행 ·박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활동 1 (청음-시창) ·개인 일지
7주	·단 3도 음정과 장 3도 음정의 조합 minor, minor 7 chord ·조성 5도권 진행 ·박자 4분의 4박자, 4분음표, 2분음표	·활동 1 (청음-시창) ·개인 일지
8주	·8가지 코드의 시창·청음 및 식별 시험	·시험



<그림 2> 색채의 조합으로 코드에 적용한 실제 활동사진

V. 연구 결과

1. 수업 태도의 변화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의 연구 대상자들을 1~3년 이하로 기존의 시창·청음 교재를 가지고 수업해 왔다. 따라서 연구자의 참여관찰을 통하여 변화를 인지하였으며, 개선된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Q. 기존 시창·청음 수업의 장, 단점은 무엇인가?

“어떤 특정한 음정의 느낌을 기억하고 나중에 떠올리기가 힘들었어요.” (이**, 피아노, 18세)

“너무 받아 적는 것에만 집중했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나오면 집중력이 금방 흐려졌어요.” (김**, 작곡, 18세)

“계속 다른 선율, 조성, 박자 등이 나와서 새로웠어요. 그런데 박자세고 조성 따지고... 하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이**, 보컬, 19세)

Q. 본 프로그램이 그동안 학습해왔던 기존의 시창청음 수업과는 다른 방식 이었는데, 본 프로그램과 기존 시창청음 수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감정을 생각하고 음정을 들으니 정말 그렇게 들려서 신기했고, 이해하기 수월했어요, 또 색깔도 비슷하게 연상이 되어 같이 생각하면 음정을 더 정확하게 시창할 수 있었어요.” (김**, 보컬, 21세)

“전에 하던 수업은 멜로디를 듣고 악보에 그리는 거여서 멜로디 자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장3도인지 단3도인지 정확하게 분간은 못하고 사실 감으로 맞췄었어요. 이번에 하는 수업은 음정을 듣고 코드를 분석해서 감정으로 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스케일들도 이런 방법으로 연습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이**, 보컬, 19세)

“전에 했던 시창청음은 범위가 다 달랐다고나 할까요? 뭐가 나오고, 어떤 박자가 나올지 몰라서 힘들었던 반면에 지금 하는 시창·청음은 음정을 전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훨씬 재미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수업 때 흥얼거리던 음정을 저도 모르게 자꾸 부르고 있고, 색깔과 감정을 대입해서 더 이해하기 쉽고 음정을 기억하는 데에 효과적이에요.” (이**, 보컬, 19세)

“전에 비해서 훨씬 재미있어요. 색깔을 떠올리면서 하니까 음정의 성질 같은 것도 이해가 잘되고 시창·청음하기가 더 수월해졌어요. 전에는 어떤 음정의 느낌을 기억하고 떠올리기가 힘이 들었거든요.” (오**, 보컬, 19세)

연구자는 수업의 목표를 매주 학습 시작 전마다 명확히 제시하였고 감정이론과 색채를 통한 음정의 형상화를 이용하여 재즈 코드와 시창·청음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주지하였다. 재즈 코드 음정을 따로 시창·청음 해본 경험이 없었고 음정을 형상화 한다는 학습을 생소하게 느꼈던 학생들은 연구 초반에는 이를 어려워하고 쉽게 자신의 감정과 색상을 선택하지 못하였으나, 감정이론과 색채와 감정효과표를 예시로 본 프로그램을 하나의 새로운 활동으로 인식하였고, 수업이 진행될수록 자신의 감정과 색상을 가지고 음정을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수업 태도 변화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색상 도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시창·청음 능력이 증진되었고 이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기존 시창·청음 수업에서의 수동적 참여태도, 집중력의 저하, 수업의 지루함 등의 문제점들은 본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통하여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참여태도로 이어졌으며, 학습 목표에 대한 동기를 찾음으로 개선이 되었다. 기존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태도는 불안해하거나, 지루한 표정, 잦은 지각 등의 모습을 보인 반면 본 프로그램의 시창·청음 수업에서는 수업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하여 자신이 정한 색상도구를 펼쳐놓거나, 의욕에 찬 표정 등의 수업 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제시한 인터뷰 중 스케일에도 이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큰 태도의 변화는 수업 시 학습하였던 음정을 돌아다니며 부르거나, 본인의 감정이 오늘은 우울하다며 단 3도 음정을, 오늘은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며 장 3도 음정을 흥얼거리는 모습들이었다. 학습자들끼리 “이게 장 3도게, 단 3도게?” “음, 이거는 장 3도!” 또는 “메이저 코드 한번 시창 해봐!” 등 장난스럽게 내기를 하는 모습 또한 관찰되었다. 기존의 시창·청음 수업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러한 태도들은 수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찰되었으며, 이는 본 프로그램이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색채와 감정효과를 이용한 학습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는데, 학생들은 음정을 색상과 연결하는 것에 큰 흥미를 가졌다. 또한 도구 선택에 있어서 28명의 학습자가 키른 베르거의 음정에 따라 연관된 감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였으며, 색채 도구에 있어서도 감정 효과에 연관된 색상 중 한 가지를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자 다른 색깔을 선택하여도 학습자끼리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 또한 나타났다. 자신이 선택한 색상도구에 앞서 선행하였던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 넣어 보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관찰되었고, 학습자들은 이러한 음정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색채로 연관되는 것에 신기함과 큰 흥미를 보였다.

연구자는 시창 학습 시 장 3도 팀과 단 3도 팀으로 조를 만들어 보다 흥미 있고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재즈 코드 시창에 적용하여 함께 코드 톤 이어가기 등의 수업을 하였다. 예를 들면 M7 코드를 구성하는 음정인 장3도, 단3도, 장3도의 음정을 학습자들끼리 나누어 첫 음을 받는 동시에 각각의 색상과 감정의 형상화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시창하여 코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집단 결속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 뿐 아니라 부족한 학생들의 참여도 또한 향상되어 학습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활동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신만의 감정과 색채를 가지고 형상화를 이용하여 재즈 코드시창·청음 학습을 한 학생들은 전의 시창·청음 수업에 비하여 자신감과 흥미를 가졌으며, 이는 수업태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켰다.

2. 재즈 코드의 시창·청음 능력 향상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도 연구 참여자들을 기존의 시창·청음 교재를 가지고 수업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시창·청음 수업의 과정을 점검 및 검토하고 프로그램 실행 전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통하여 본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감정이론, 색채와 감정효과를 언급하고 실시한 시창·청음 프로그램처럼 형상화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업은 없었으며, 이를 색채와 연관한 수업도 없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정서발달 혹은 음악 외적인 지능의 발달 등에 연관된 프로그램이 아닌 재즈 코드의 시창·청음 능력 향상 및 나아가 코드의 식별을 목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사전, 사후로 재즈 코드 시창·청음 시험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향상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시험지의 문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3, 4>.

연구자는 본 시험지를 프로그램 실행 전 후로 분류하여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적용하였으며, 시창과 청음평가로 각각 나누어 실행하였다. 시창 시험에서는 3화음 10문항, 7화음 10문항으로 총 20문항을 출제하였고, 시험 방법은 코드 톤의 1-3음, 3-5음, 5-7음 으로 나누어 시창하거나, 한번에 1-3-5-7음을 시창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시험의 제한 시간은 정확한 결과와 시험의 분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별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5분으로 정하였다. 처음 시작하는 첫 음을 들려주었고 음의 제시는 2회로 제한하였으며, 시창하는 것에 3번의 기회를 주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정답과 오답에 관계없이 기존 시창 수업에서와는 다른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학습자들은 diminished

다음의 코드의 각 구성 음을 시창하시오.

(시창 방법 : 코드톤 1-3,3-5 또는 1-3,3-5,5-7, 또는 1-3-5 또는 1-3-5-7 중 택 1)

1. 3화음

- 1) C dim
- 2) F Aug
- 3) Bb Major
- 4) Eb minor
- 5) A dim
- 6) B minor
- 7) C Major
- 8) G dim
- 9) Ab minor
- 10) Db Aug

2. 7화음

- 1) C dim 7
- 2) G Major 7
- 3) F minor 7
- 4) Bb 7
- 5) Eb Major 7
- 6) A minor 7
- 7) D Major 7
- 8) G dim 7
- 9) Ab 7
- 10) C# minor 7

<그림 3> 재즈 코드 시창 평가

1. 제시된 음정을 듣고 장 3도, 단3도로 분류하여 적으시오.

- | | |
|----|-----|
| 1) | 6) |
| 2) | 7) |
| 3) | 8) |
| 4) | 9) |
| 5) | 10) |

2. 다음 코드를 듣고 구성음들의 간격을 분석하고, 아래의 코드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 | | | | | |
|---------|---------|-----------|------------|------------|
| 1- 3화음 | 1) aug | 2) dim | 3) Major | 4) minor |
| 2- 3화음 | 1) aug | 2) dim | 3) Major | 4) minor |
| 3- 3화음 | 1) aug | 2) dim | 3) Major | 4) minor |
| 4- 3화음 | 1) aug | 2) dim | 3) Major | 4) minor |
| 5- 3화음 | 1) aug | 2) dim | 3) Major | 4) minor |
| 6- 7화음 | 1) dim7 | 2) Major7 | 3) 7 chord | 4) minor 7 |
| 7- 7화음 | 1) dim7 | 2) Major7 | 3) 7 chord | 4) minor 7 |
| 8- 7화음 | 1) dim7 | 2) Major7 | 3) 7 chord | 4) minor 7 |
| 9- 7화음 | 1) dim7 | 2) Major7 | 3) 7 chord | 4) minor 7 |
| 10- 7화음 | 1) dim7 | 2) Major7 | 3) 7 chord | 4) minor 7 |

3. 제시된 코드 5가지를 듣고 나머지 코드와 다른 성격의 코드를 고르시오.

- 1) 3화음 1 2 3 4 5
- 2) 3화음 1 2 3 4 5
- 3) 3화음 1 2 3 4 5
- 4) 3화음 1 2 3 4 5
- 5) 3화음 1 2 3 4 5

4. 제시된 코드 5가지를 듣고 나머지 코드와 다른 성격의 코드를 고르시오.

- 1) 7화음 1 2 3 4 5
- 2) 7화음 1 2 3 4 5
- 3) 7화음 1 2 3 4 5
- 4) 7화음 1 2 3 4 5
- 5) 7화음 1 2 3 4 5

<그림 4> 재즈 코드 청음 평가

코드에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정답률 또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단 3도로 모두 음정의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augment triad 코드와 major triad 코드 시창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 코드가 3-5음에서 반음의 미세한 차이가 나는 점과, 프로그램에 사용된 나머지 코드들 중 일상에서 major triad 코드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점, 보컬 실기 수업에서 이 코드를 가장 많이 시창과 청음 활동으로 학습하기 때문인 점으로 판단되었다. 청음 시험에서는 음정의 분류 10문항, 각 구성 음을 듣고 코드 맞추기 3화음 5문항, 7화음 5문항, 제시된 음정을 듣고 나머지 코드와 다른 성격의 코드를 고르는 코드 식별 3화음 5문항, 7화음 5문항으로 총 30문항을 출제하였다. 연구자는 본 청음 시험에서 들려주는 음정들을 첫 번째 향인 음정의 분류에서는 2회, 나머지 문제에서는 5회로 제한하였다. 학습자들은 음정 분류하기 문제인 10문제에서는 별 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나, 코드 맞추기에서 3화음 보다 7화음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들었던 음정을 작게 흥얼거리며 곱씹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코드 식별 시험에서 한번만 더 들려달라는 등의 발언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맞춰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태도를 보였다.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

<표 12> 프로그램 실행 후 재즈 코드 시창·청음 점수 변화

연구 대상자(30명)		실행 전 점수 (100점 만점)	실행 후 점수 (100점 만점)	차이
코드 시창· 청음	시창 능력	최저학생 55점 최고학생 85점	최저학생 85점 최고학생 100점	30점 15점
	청음 능력	최저학생 50점 최고학생 80점	최저학생 77점 최고학생 100점	27점 20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재즈 코드의 시창과 청음, 두 과목 모두 실행 전에 비하여 15점 이상 30점 이하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본 프로그램이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실행 전, 후의 최고득점자는 동일한 학습자였으며 최고 점수의 15, 20점 차이에 비하여 최저 학생의 30점 차이의 큰 점수 변화는 최저 학생에게 더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음정의 형상화를 통한 재즈 코드 시창·청음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재즈 코드 시창·청음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음정의 형상화를 위하여 감정이론, 색채와 감정 효과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도구들이 학습자들

의 재즈 코드 시창·청음 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되었음을 입증한다.

VI. 결론

본 연구는 실용음악 전공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이 재즈 코드의 이론적 이해 수준에 비하여 이를 시창·청음 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재즈 코드 시창·청음 능력 향상과 수업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자는 기존 시창·청음 수업의 보완을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해 개선책을 연구하였고 감정이론, 색채와 감정효과 이론들의 고찰을 통해 음정의 형상화를 이용한 재즈 코드 시창·청음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용음악 전공을 희망하는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약 16시간의 수업을 진행하여 본 프로그램에 의해 개선된 변화를 관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재즈 코드의 시창·청음 능력 향상 및 수업 개선의 효과를 결과로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수업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으며 이는 시창·청음 수업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시창·청음 수업은 대부분 듣고 받아 적기의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에 맞춰져있고, 이론적인 내용들에 초점이 맞춰진 형태였기 때문에 학습자는 수동적인 수업이었다. 따라서 학습자 고유의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표현하기,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정과 관련된 색채를 선택하기 등의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학습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은 수업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색채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한 결과, 학습자들은 기존 시창·청음 수업에 비하여 큰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였으며 수업 태도 또한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재즈 코드 시창·청음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연구자는 기존의 시창·청음 수업에서도 음정 및 선율을 자신의 방법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학습자들 또한 어려움을 느꼈다. 본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 및 색채 도구를 가지고 음정의 형상화를 통하여 재즈 코드 시창·청음 학습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였고, 이는 재즈 코드 시창·청음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코드를 식별하는 것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창·청음 수업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 교육자는 교육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활동 개발을 위하여 무수한 노력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재즈 코드 시창·청음의 형상화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관련 과목에서도, 모든 학습자가 느끼는 요소들은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과 그에 파생된 색채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는 학습자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것이 본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감정이론과 색채를 활용한 재즈 코드 시창·청음의 학습 방법은 시창·청음의 능력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이론으로만 통용되었던 시창·청음 교육에서 이에 대한 학습 동기부여와, 학습 목표에 있어 그 과정이 얼마나 흥미롭고 창의적이며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며, 이것이 본 실험연구의 의미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재즈 코드의 음정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나 이를 재즈 스케일에도 적용해 본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재즈 코드의 시창·청음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지도자들과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성우 외(역) (2005).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 *Millis, G. E. Action Research*. 서울: 우리교육.
- 강은미, 조태선 (2017). 재즈 보컬 입문자를 위한 즉흥연주에 관한 연구 : 코드의 근음과 코드 톤을 이용한 연습방법 및 연출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5(6), 377-383.
- 고선미 (2012). 초등학생을 위한 전략적 음정지도 방안. **음악교육연구**, 41(2), 1-40.
- 김미애 (1999). 바로크 시대의 감정이론(Affektenlehre)에 관한 고찰, **이화음악논집**, 3(1999), 5-44.
- 김성수 (2013). 음악의 시각화를 통한 패션디자인 연구 : 바실리 칸딘스키의 회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영천 (2001). **교과교육과 수업에서의 질적연구**. 서울: 문음사.
- _____ (2013). **질적연구 방법론Ⅱ**. 아카데미프레스. 389-458.
- 김홍교 (1975). **시창·청음**. 서울: 현대악보출판사.
- 김효정(2000). 요한 마테존(Johann Mattheson)의 “감정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 김혜련 (2007). **예술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51-60.
- 김혜실 (2014).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시창청음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음악교육연구**, 43(4), 115-139.
- 노주희 (1993). 올바른 시창·청음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낭만음악**, 19, 235-252.
- 문선옥, 이정섭, 유택상 (2016). 음악의 느낌을 형상화한 화예 작품 창작, **한국화예디자인학회**, 35(2016), 209-217
- 박재열 (1973). 大學 視唱 聽音指導의 實際, **교육논집**, 6(1), 219-234.
- 신은희 (2009). 피아노 즉흥연주를 활용한 음정 청음의 학습 방안 연구. **한국달크로즈논집**. 1, 113-131.
- 신혜승 (2010). 실용음악 전공자를 위한 시창청음 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1(10), 3673-3679
- 신혜승 (2010). 실용음악 전공자의 시창청음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산학기술학회**, 677-680.
- 양서영 (2010). 비유적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지도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문,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 윤지원 (2013). 백남준의 음악적 형상화에 관한 연구, **이화음악논집**, 17(2), 7-33.
- 이내은 (2001). 시창 청음 지도 방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성현 (2016). **코드 청음 가이드북**. 예솔.
- 이우창 (2003). **재즈 시창청음**. 경희대학교 출판국.
- 최영주 (2008). **색깔이 속삭이는 그림**. 아트북스.
- 최윤영 (2008). 색채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배색교육에 관한 연구 : 색채의 감정반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하현승 (2012). 어린이 그림책의 색채와 감정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한승희 (2013). 국내 실용음악과 커리큘럼 분석 및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한정순 (2007).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지도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Donelian. A. (1992). *Training The Ear for the Improvising Musician*, Advance Music.
- Creswell, J. W.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3rd ed). SAGE publications, Inc.
- Faber, B. (2003). **색채의 영향**, 김진한(역). 시공사.
- Kirnberger, J. Ph (1968). *Die Kunst des reinen Satzes in der Musik*. Berlin und Konigberg, 1771 und 1776-1779; Repr. Hildesheim.
- Sisley, B. A(2008). *A Comparative study of Approaches to Teaching Melodic Dictation*, M.A. Thesis, Kent state University.
- Serauky, W. (1951), *Affektenlehre in Musik Geschichte und Gegenwart*, Bd, 1(Kasel & Basel)

ABSTRAC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Jazz
Chord's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Program Through the Shape of Musical
Intervals**

Kim, Ye-seul · Jeon, Yoon-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implement a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program through the shape of musical intervals and to identify the pos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its field application. Utilizing Affektenlehre and Color and Emotional Effect Theory, which ar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is study, it developed the program through the emotional and visual shape of musical intervals, which had been conducted for approximately 16 hours. With the experiment, the study could figure out the effect of the program and the change of learners who had taken the program.

Application of the program resulted in the learners' improvement in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skills and formation of positive learning attitude as well.

Therefore, applying and supplementing it to Jazz scale, not limited to musical intervals, will help develop more diverse and creative methods of teaching a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skills.

Key words: musical intervals, shape,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Jazz chord

투고일: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3일(10월 8일), 게재확정일: 10월 29일